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마당 프로젝트 공모」 2차(발표심사) 심사방식 의결서

일시 | 2025년 06월 13일 금요일

장소 | 코엑스 Conference Room(남) 304호

심사 대상작은 총 10개 (북쪽마당 5개 / 남쪽마당 5개)로 현장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심사위원장은 1차 심사와 동일하게 박윤진 위원으로 진행 및 심사방식도 동일하게 진행.

발표 순서는 심사대상자 전원 참석하에 추첨을 통해 선정. (S 5, 2, 1, 4, 3 / N 4, 3, 5, 2, 1 순으로 발표)

<남쪽마당>

심사위원회 논의 및 거수 투표를 통해 3~5등 순위를 선정함. 3등(S5), 4등(S2), 5등(S3)

최종 만장일치 논의를 통해 당선작은 S1, 2등작은 S4로 결정.

<북쪽마당>

심사위원회 논의 및 거수 투표를 통해 3~5등 순위를 선정함. 3등(N4), 4등(N5), 5등(N3)

최종 만장일치 논의를 통해 당선작은 N2, 2등작은 N1로 결정.

* 위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약당사자와 협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 수용을 거부할 경우, 당선을 취소하고 2등안을 포함한 차순위작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 또한, 이후 진행 과정에서도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사종료>

심사위원 :

백 종 현 (서명)

심사위원 :

이 정 훈 (서명)

심사위원장 :

박 윤 진 (서명)

심사위원 :

이 승택 (서명)

심사위원 :

이 현 속 (서명)

예비심사위원 :

양 승 인 (서명)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마당 프로젝트 공모」 남쪽마당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서

일시 | 2025년 06월 13일 금요일

장소 | 코엑스 Conference Room(남) 304호

상기 공모안에 대하여 각 응모작품을 심사결과 당선작과 입상작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남쪽마당				
순 위	심사번호	참가번호	소 속	대표자
당선작	S1	AJT755	하이퍼스팬드럴+고재협오나에	전재우+고재협
2등	S4	NXM601	SUNSUHA	김기한
3등	S5	TUZ124	개인(서울시립대학교) +개인(한국예술종합학교)	김남주+지강일
4등	S2	KBB027	국민대학교+모킴	모성범+김현수
5등	S3	NRA621	㈜이디아이환경디자인+㈜이디아이 환경디자인	최성애+엄성렬

심사위원장 : 박윤진 (서명)

심사위원 : 백종현 (서명)

심사위원 : 이승택 (서명)

심사위원 : 이정훈 (서명)

심사위원 : 이현숙 (서명)

예비심사위원 : 양수인 (서명)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마당 프로젝트 공모」 북쪽마당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서

일시 | 2025년 06월 13일 금요일

장소 | 코엑스 Conference Room(남) 304호

상기 공모안에 대하여 각 응모작품을 심사결과 당선작과 입상작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북쪽마당				
순 위	심사번호	참가번호	소 속	대표자
당선작	N2	LBL321	주식회사 얼라이브어스 +주식회사디자인스튜디오이레	김태경+김재용
2등	N1	KAV291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ggh:architecture +선율조경기술사사무소	이재원+고진혁+조원희
3등	N4	WGM858	조경작업소 울 +오브아워디자인	조크리스틴성빈, 김상수 +김주환
4등	N5	YKA683	개인 (경희대학교 소속) +studio MRDO	전진현+송민경
5등	N3	NME913	조경기술사사무소 지공 +경희대학교	김미연+민병욱

심사위원장 :

박유진 (서명)

심사위원 :

백종현 (서명)

심사위원 :

이승택 (서명)

심사위원 :

이정훈 (서명)

심사위원 :

이현숙 (서명)

예비심사위원 :

양수인 (서명)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마당 프로젝트 공모」 심사평

일시 | 2025년 06월 13일 금요일

장소 | 코엑스 Conference Room(남) 304호

구분		심사평
남 쪽	S1 (당선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프로젝트의 서사가 우수하고, 재료의 의미와 실용적 선택이 돋보였음다만, 안전과 이용에 있어, 구조적 엔지니어링과 활용 동선이 재검토 되어야 하므로 설계 착수 후 별도의 자문회의를 통한 수정 보완이 필요함가급적 심사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설계공모의 연속성을 살리기 바람
	S2 (4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형태의 변화감이 우수하나, 날씨변화에 취약하고, 급경사 마운딩의 안전문제와 구조적 실현 가능성의 어려움이 예상됨
	S3 (5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재료 선택과 설치의 가변적 활용이 우수하나, 안전문제와 유지관리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됨
	S4 (2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오브제 자체의 생태적 함의와 의미는 충분하나, 장소적 맥락과의 연결 그리고 형태적 개연성이 부족함. 시설이 아니라 공간으로, 장소로서 설명했다면, 보다 큰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음.
	S5 (3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놀이라는 주제에 적합한 훌륭한 소재이나, 다만 공간적 배치에 위계가 없고, 시설물의 높은 밀도가 오히려 창조적 놀이를 방해 할 여지가 있음
북 쪽	N1 (2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프로젝트의 서사가 뛰어나, 당선작으로 손색이 없으나, 다만 대형수목의 도입과, 천이 과정의 수평적 식재 배열이 설계공모의 주제인 "쉼"을 담기 보다는 전시적인 성격에 가깝고디자인 빌드 제안이 가져야 하는, 시공 현실성과 준공 후 드러나야 하는 즉물성이 취약한 것이 아쉬움. (오랜 시간에 기대야만 하는 설계안의 시간적 한계)다만, 시각적 표현과 개념적 서사가 훌륭한 점은 높이 평가 할 만함.
	N2 (당선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연지반을 활용한 숲의 활용, 동선의 배열 그리고 경계 표현이 디자인 빌드에 적합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음. 주어진 공사비와 공사여건을 잘 고려하였음다만 습윤시설의 색상/형태/위치가 전체 공간의 위계와 어울리지 않아, 재검토 되어야 하므로 설계 착수 후 별도의 자문회의를 통한 수정 보완이 필요함가급적 심사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설계공모의 연속성을 살리기 바람
	N3 (5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식재의 배식과 공간구성이 전체 전시공간과 매우 잘 어울렸으나, 단지 투시벽 시설물의 소재선택이 이를 이끌지 못하여, 당선작으로 손색이 없었으나, 아쉬웠음.
	N4 (3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수공간의 배치와 형태는 아름다우나, 하드한 수경시설 도입으로 투수가 유리한 자연지반의 여건을 살리지 못한 점과 폭우와 유지관리에 취약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선작으로 손색이 없었고, 평가 시 아쉬웠음.
	N5 (4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어나무의 대표성이 뛰어나고, 지형의 아름다움을 계절적 변화와 그리고 운영의 묘미를 통해 설명한 점은 당선작으로 손색이 없으나, 지형과 포장의 단으로 나누어져, 지형의 미묘함이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 (두개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심사위원 : 박윤진 (서명)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마당 프로젝트 공모」 심사평

일시 | 2025년 06월 13일 금요일

장소 | 코엑스 Conference Room(남) 304호

구분	심사평	
남 쪽	S1 (당선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렉산’,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익숙한 재료를 사용하여 창의적인 스토리와 디자인으로 구현하여 남쪽 마당에 대한 본 공모의 주제에 부합하는 동시에 도전적이며 다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작임.흥미로운 형태와 야외환경에서의 빛과 그림자 효과로 인한 방문객의 반응이 기대됨.시공과정에서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목업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S2 (4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코르크 블록과 코르크 포장으로 구현한 다양한 땅의 형태가 흥미로운 안이나, 급한 경사나 터널 등에 대한 구조적인 해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음.
	S3 (5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풍선(ETFE, PVC)를 사용하여 한글자음으로 구성된 다층레이어의 파빌리온의 아이디어를 섬세하게 풀어낸 안이나 다른 안에 비해 스토리와 임팩트가 평이함.
	S4 (2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원형의 수반을 통한 개구리밥의 증식을 시각화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작품의 배경과 내러티브, 메시지는 본 공모에 있어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주목할만함.하지만 당선작에 비해 직관적인 의미의 전달은 부족하며 작가의 기존 작업과 지나치게 유사한 점도 당선작으로서의 독창성 측면에서 감점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S5 (3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다양한 공간과 로프를 사용한 다양한 경험을 도출해낸 흥미로운 안이나, 당선작에 비해 아이디어의 신선함이나 내러티브의 깊이는 다소 부족함.
북 쪽	N1 (2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소멸하는 건축, 생성하는 조경이라는 주제로 북쪽마당에 원시림의 조성을 제안하는 매우 도전적인 주제의식이 돋보이는 안임실질적인 공간경험에 대한 고민이 아쉬웠으며 콘크리트 기둥은 주제와는 적합하나, 디자인과 기능이 공감되지 않음.
	N2 (당선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작동하는 전시적 자연이라는 주제로 원생의 자연을 경험하는 전시적인 공간을 감각적이고 짜임새있게 제안한 안임.원시림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N1과 유사하나, 이용적 측면을 보다 고려하여 자연안에서 휴식의 공간으로 작동할 것이라 기대됨.공간의 스케일에 비해 밀도가 높은 측면이 있어 당선 후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밀도로 조절할 필요가 있음.당선 후 실시설계,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여 수준높은 결과물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N3 (5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스멘트 블록을 활용한 투시벽을 통해 겹쳐진 풍경과 숨겨진 정원을 구현한 안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자연과 함께 머물고 거니는 경험을 섬세하게 설계한 안임투시벽의 형태, 재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N4 (3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거울못(수공간)을 중심으로 자연안에서 사유하며 휴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제안한 안임공간의 흐름과 휴식의 형태를 섬세하게 설계하였으나,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마당으로서의 독창적인 공간의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음
	N5 (4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잔디마운딩을 통한 부드럽고 오목한 공간의 리듬이 돋보이는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안임잔디마운딩의 구현 및 유지관리에 있어 현실적인 우려가 있음.

심사위원 : 백종현

(서명)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마당 프로젝트 공모」 심사평

일시 | 2025년 06월 13일 금요일

장소 | 코엑스 Conference Room(남) 304호

구분		심사평
마 쪽	S1 (당선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뮬라크르의 적절한 개입과 그 태도의 위트가 매우 인상적인 제안재료의 선정과 구축방법의 방향성이 명료하고 그 결과물이 만들어내는 경험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구조 프레임의 안정성 검토를 하더라도 구조의 그림자(시각적 효과)를 고려하면 제안된 구조의 틀을 바꾸지 않고 보강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S2 (4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놀이와 기능의 지형을 이용한 마당의 흥미로운 풍경을 제안작은 스케일의 자연을 구현한 3차원의 통합된 언어의 개념이 잘 표현됨
	S3 (5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ETFE와 PVC 등 인플레이터블 재료의 감각이 강조된 제안사용자의 촉각적, 시각적 경험이 잘 표현되었음
	S4 (2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생태적 마당으로 정의되는 장소의 해석과 거시적 생태계 순환에 대한 의도가 선명한 제안시간 변화에 따른 수반 질감의 변화가 섬세하고 우아한 제안으로 상상력을 자극함
	S5 (3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playful 한 재료의 선정과 조형성 및 공간 가능성이 흥미로움탄성로프가 만드는 느스한 경계면과 사이 공간들의 경험이 풍부한 제안
북 쪽	N1 (2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식생의 천이과정과 페콘크리트 기둥의 변화가 시간성이라는 주제로 잘 표현된 제안
	N2 (당선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연과 인공의 병치로 자연을 느끼는 경험이 중의적 형태의 전시로 흥미롭게 제안미세기후를 점진적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이 놀이와 이벤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풍부폴의 크기, 상세 및 작동방법과 미러폰드의 영역 및 모양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요구됨
	N3 (5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차폐벽을 이용한 동선구성과 식생의 종류에 따른 공간감이 잘 표현된 제안
	N4 (3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식생의 배치를 중정의 주변으로 하여 중앙을 미러폰드로 비워내어 시각적 긴장과 정서적 몰입을 흥미롭게 제안
	N5 (4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연 안에서의 쉼과 식생을 감상하는 방식이 다층적인 흥미로운 제안

심사위원 : 이승택 (서명)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마당 프로젝트 공모」 심사평

일시 | 2025년 06월 13일 금요일

장소 | 코엑스 Conference Room(남) 304호

구분		심사평
남 쪽	S1 (당선작)	• 근사한 논리적 지체가 특유한 자연과 건축, 인공재의 관계성에 대해 영리한 질문이 인상적이다.
	S2 (4등작)	• 큰크라운 등재의 연구는 바람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다양한 수직적 공간을 제시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S3 (5등작)	• 한층 더 정제된 정제된 공간을 풍성하게 구성. ETPC, PVC 등 지능적으로 보완가능한 소재를 사용으로 제안함.
	S4 (2등작)	• 유익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소재가 새로운 레이어의 관측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래적, 친환경 건축건축의 방향을 보여줌.
	S5 (3등작)	• 다양한 도형의 도형을 강건한 형태의 관-계성을 통해 기하학은 변형, 확장성 등 있는 다양한 제안.
북 쪽	N1 (2등작)	• 수직적 구조를 위한 시사적 지체. 강건한 다양한 시성을 활용한 대채를 마당의 공간구조이 훌륭함.
	N2 (당선작)	• 마당의 구조적인 여백과 자연을 담은 수직공간, 비어있는 구조적이지 하는 의도가 인상적이다. 좀더 섬세한 디자인이 필요해 보인다.
	N3 (5등작)	• 많은 정제된 공간부리에 따른 등산 지체. 강건한 수직배치에 대한 강건성, 유연성 등 다양한 제안이 인상적이다.
	N4 (3등작)	• 정제가능한 범위의 틀을 제시하고 문으로 활용하여 배제감있는 강건성을 구성함. 강건한 수직 배치나 풍요로 인상적이다.
	N5 (4등작)	• 대이탈하리던 강건한 면을 늘림, 제정적 강건으로서 마당의 의미를 구축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심사위원 : 이 정현 (서명)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마당 프로젝트 공모」 심사평

일시 | 2025년 06월 13일 금요일

장소 | 코엑스 Conference Room(남) 304호

구분		심사평
남 쪽	S1 (당선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렉산이라는 건축재료를 사용한 작품 컨셉이 매우 창의적이며, 박물관 마당이라는 공간의 실용적인 목적 뿐 아니라 자연과 인공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보여주는 작품임
	S2 (4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관람객들이 즐기는 놀이공간으로 표현되었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행동 패턴에 대한 개념만 제시되어 놀이공간 외 서사가 부족함
	S3 (5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시의 건축도시박물관에서의 비계와 한글이라는 소재는 참신하나 구현 및 관리에 대한 우려가 크고, 내부 공간에서의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S4 (2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적 관점에서 건축도시박물관에서 제시해야 할 질문을 인식과 참여를 위한 공간으로 해석함이 탁월함, 어린이박물관 프로그램과 연계 및 계절에 따른 관리에 대한 우려됨
	S5 (3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와 건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형을 탄성로프로 풀어내어 흥미로움, 도시건축 박물관 마당에서만 가질 수 있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다소 약함
북 쪽	N1 (2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 서사를 풀어낸 방식이 탁월하고, 제안서 이미지와는 달리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일부 수목은 도시건축박물관 초기의 풍경과 제안서와는 다를 수 있어 우려됨
	N2 (당선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기후라는 요소를 사용하여 건축과 자연에서의 연계성을 살피 인공 자연을 표현함이 탁월함. 추후 공간의 밀도와 건축 디테일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함
	N3 (5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실의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시퀀스에 대한 느낌은 좋으나, 도시건축박물관 내 또 다른 결(타공월)의 건축 속의 자연이 있는 느낌이 들어 아쉬움
	N4 (3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계획하여 비움의 요소가 좋음, 우천시 범람의 우려와 실내와 실외를 오갈 때 바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음
	N5 (4등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객들에게 재미있는 휴식공간이자 관조하는 공간으로 표현, 공간 서사에서의 웨이브 개념이 테두리 통석 경계로 일부 단절되어 보임. 또한 조경관리운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심사위원 : 이현숙 (서명)
